

## 전통토착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이한기(농촌생활연구소)

### I. 머리말

전통토착지식 관련 연구는 각국의 전통문화 유지,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 들어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많은 관심을 끌게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체결되고 이의(8조j항)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의 전통토착 지식과 기술 및 모든 관행까지도 잘 유지되고 보전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부터이며 그 이후 본격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1997년도에 농촌진흥청 산하 8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농촌사회의 전통토착지식 및 전통농업기술의 목록화”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전통토착지식 자원을 실용화,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토착지식·기술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토착지식·기술의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많은 전통문화자원 가운데에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얻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문가들에 의한 delphi 조사기법<sup>1)</sup>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지식 및 기술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과학성, 경제성, 상품화가능성 등 3영역으로 나누어 중요도 정도를 5점 척도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총 4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생활용품 분야 등 4개의 전문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또한 delphi 조사는 모두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먼저 1차 조사에서는 전통토착지식 및 기술 가운데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제안·선정토록 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이들 선정된 전통지식의 전체 항목(114항목) 가운데에서 3인 이상이 제안한 75항목을 대상으로 3개 영역에 대한 5점 척도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자료를 재차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였다.

생활문화의 정의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생활문화관련 전통지식·기술을 “음식 및 식생활 분야”, “주택 및 주생활분야”, “의복 및 의생활분야”, “생활용품 및 놀이용품”, “기타 분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delphi 1차 조사 결과

---

1) delphi라는 이름은 원래 아폴로신전이 있는 그리이스의 옛도시 이름이었으나 1960년 대 초 미국 Rand 사의 Helmer, Dalkey와 Douglas사의 Gordon 등이 공동연구를 통하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의견합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조사기법으로서 brain storming 방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1995).

1차 조사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토착 지식·기술 자원 중에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지식·기술 항목을 제한없이 기술토록 한 결과 1인 이상이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전통지식·기술 항목은 모두 114항목이었으며 이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복 및 의생활분야 22항목, 음식 및 식생활분야 24항목, 주택 및 주생활분야 18항목, 생활용품·놀이용품 등 기타분야 50항목으로 생활 및 놀이용품 분야가 가장 많고 주택 및 주생활 분야가 가장 적었다(<표 1>).

표 1.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전통지식·기술 항목

분 야	항목수	제 안 항 목(응 답 빈 도)
의복 및 의생활분야	22	전통직물 및 제품(21), 전통염색 및 염료(19), 전통한복 및 전통혼례복(17), 머리장식품(16), 장신구(14), 노리개(9), 매듭(8), 모자류(8), 조각보(8), 자수(7), 주머니(7), 한복소품(6), 전통신발(6), 한복덧의류(6), 개량한복(6), 누비 및 누비제품(5), 전통문양(5), 침구 및 반질고리세트(5), 버선 및 타래버선(3), 흥배 및 대구(3), 돌복세트 및 천연배내옷(3), 금박장식품(2)
음식 및 식생활분야	24	한과류(23), 음청류(20), 김치류(18), 장류(17), 떡류(14), 다류(10), 전통곡주 및 민속주(9), 면류 및 빵류(8), 전류(8), 구이류(6), 구절판(5), 장아찌류(4), 산채 및 나물류(4), 묵류(4), 밥류(4), 건조분말류(4), 반상차림(3), 이바지 및 폐백음식(3), 젓갈류(3), 곡류 및 과일식초(3), 냉면(2), 국·탕류(2), 건조해산물(1), 부각류(1)
주택 및 주생활분야	18	창호(13), 목가구(10), 온돌(9), 황토방(9), 한옥(8), 정자(5), 마루(4), 나전칠기류(4), 옷칠(4), 전통가옥(4), 기와(3), 장판지 및 벽지(3), 전통담장(3), 향교 및 서원(3), 대문장식(2), 단청(2), 경대(2), 풍경(1)
생활용품 놀이용품 기타분야	50	한지제품(12), 옷놀이(9), 도자기류(8), 죽제품(7), 옹기류(6), 유기(6), 부채(6), 연(6), 목기류(6), 짚풀(4), 팽이(4), 인형(4), 고비(4), 널뛰기(3), 굴렁쇠(3), 민속그림(3), 투호(3), 화각(3), 함(3), 소반(3), 전통반침세트(2), 화문석(2), 병풍(2), 탈(2), 수저세트(2), 장승(2), 전통악기(2), 제례기구(2), 분청사기(2), 종이공예(2), 바가지(2), 솟대(2), 자치기(2) 제기놀이(2), 떡살(1), 등 및 등잔(1), 문방사우(1), 화로(1), 가마솥(1), 발(1), 솟(1), 대추나무제품(1), 옥공예(1), 화투그림(1), 남근형상제품(1), 명적(1), 담뱃대(1), 종경도(1), 격구(1), 씨름(1)
계	114	

응답빈도로 보면 분야별로는 음식 및 식생활분야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안하였으며, 항목별로는 한과류가 가장 많은 23명이, 그 다음으로 전통직물 및 제품이 21명, 음청류가 20명으로 많이 제안하였다. 10명 이상이 제안한 항목을 보면 의복 및 의생활분야에서는 전통직물 및 전통염색, 한복 등 5항목이었고, 음식 및 식생활분야에서는 한과류, 음청류, 김치류, 장류 등 6항목, 주택 및 주생활 분야에서는 창호, 목가구 등 2항목,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한지제품이었다.

제안한 이유를 보면 가장 응답빈도가 많은 한과류의 경우는 양과와 달리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고 문양이나 색채 등 미적인 효과도 높아 세계화시키기 좋다고 응답하였고, 전통 직물 및 제품은 천연소재로서 통풍, 흡습 등이 좋아 몸과 건강에 좋고, 의복, 침구, 공예품,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2. delphi 2~3차 조사 결과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제안된 114항목 중 3인 이상이 응답한 75항목에 대하여 과학성, 경제성, 상품화 가능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 때 제시된 전통지식·기술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응답자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평가시 참고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평가의 근거 및 의견도 함께 개진토록 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응답된 75항목에 대하여 과학성, 경제성, 상품화 가능성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반복하여 평가토록 하고 아울러 종합적인 평가도 함께 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시된 전통지식·기술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 응답한 응답자수와 평가점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평가시 참고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토록 하였다.

2~3차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표 2~5>와 같다.

먼저 의복 및 의생활분야를 보면(<표 2> 참조), 3차 조사결과 과학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통직물 및 제품(4.2점), 전통 염색 및 염료(4.2점)였고, 그 다음으로 전통문양(4.0점), 개량한복(3.6점), 매듭(3.6점), 침구 및 반질고리세트

표 2. 전통지식·기술 항목별 평가점수(의복 및 의생활분야)

지식·기술 항목	과학성 (응답수)		경제성 (응답수)		상용화가능성 (응답수)		종합평가 (응답수)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전통직물 및 제품 (삼베, 모시 등)	4.2(36)	4.2(39)	3.4(36)	3.8(38)	4.2(36)	4.3(38)	3.9(32)
전통(천연)염색 및 염료	4.2(36)	4.2(37)	3.2(36)	3.6(37)	3.9(36)	4.1(37)	3.8(32)
전통한복 및 혼례복	3.3(34)	3.6(37)	3.2(36)	3.4(36)	3.8(34)	3.8(37)	3.5(30)
머리장식품 (족두리, 머리꽃이 등)	3.1(35)	3.4(37)	3.1(35)	3.3(37)	3.3(35)	3.7(38)	3.1(31)
장신구 (가락지, 귀걸이 등)	3.5(35)	3.8(38)	4.0(35)	4.1(37)	4.2(35)	4.4(38)	4.0(31)
노리개	3.4(35)	3.7(38)	3.6(35)	3.6(37)	3.9(35)	3.9(36)	3.7(31)
매듭	3.6(35)	3.8(36)	3.4(35)	3.7(38)	4.0(35)	4.1(37)	3.7(31)
모자류(갓, 망건 등)	3.0(34)	3.1(35)	2.5(34)	2.5(35)	2.9(34)	4.1(37)	2.8(30)
조각보	3.4(35)	3.6(38)	3.7(35)	4.0(37)	4.1(35)	4.2(37)	3.9(31)
자수	3.2(35)	3.5(37)	3.3(35)	3.6(37)	3.9(35)	3.9(37)	3.6(31)
주머니	3.1(34)	3.1(36)	3.1(34)	3.3(38)	3.5(34)	3.5(37)	3.4(30)
한복 소품 (동정, 대넙 등)	2.7(34)	3.0(34)	2.6(34)	2.7(35)	2.8(34)	2.8(34)	2.6(30)
전통신발 (고무신 포함)	2.9(34)	3.0(36)	2.8(34)	2.9(37)	3.0(34)	2.9(36)	2.8(30)
한복 덧의류 (두루마리, 조끼 등)	3.3(35)	3.2(34)	3.1(35)	3.0(35)	3.3(35)	3.4(35)	3.3(31)
개량한복	3.6(36)	3.9(38)	3.8(36)	3.8(37)	4.0(36)	4.3(37)	3.8(32)
누비 및 누비제품	3.5(35)	3.7(38)	3.5(35)	3.4(37)	4.0(36)	3.8(37)	3.7(31)
전통문양	4.0(35)	4.0(38)	4.3(35)	4.2(37)	4.5(35)	4.4(37)	4.5(30)
침구 및 반질고리세트	3.5(34)	3.6(37)	3.3(34)	3.4(36)	3.4(34)	3.5(36)	3.5(30)
버선 및 타래버선	2.5(34)	2.7(34)	2.4(34)	2.5(35)	2.6(34)	2.7(35)	2.5(30)
흉배 및 대구	2.4(33)	2.5(34)	2.3(33)	2.4(35)	2.4(33)	2.6(35)	2.3(29)
돌복세트 및 천연배내옷	3.1(33)	3.3(36)	2.8(33)	2.9(35)	3.2(33)	3.1(35)	3.2(29)

※ 평가점수의 기준 : 1점(개발가치가 대단히 적음)~5점(개발가치가 대단히 많음)

(3.5점), 누비 및 누비제품(3.5점) 순이었다. 경제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통문(4.3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장신구(4.0점), 개량한복(3.8점), 조각보(3.7점), 노리개(3.6점) 등이었다.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전통문양(4.5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전통직물 및 제품(4.2점), 장신구(4.2점), 조각보(4.1점), 매듭(4.0점) 등이었다. 이상의 3가지 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점수를 보면 전통문양이 5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신구(4.0점), 전통직물 및 제품(3.9점), 조각보(3.9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 영역별로는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경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및 식생활분야를 보면(<표 3>), 3차 조사결과 과학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김치류로서 5점 만점에 4.8점이었고, 다음으로 장류(4.7점), 다류(4.5점), 전통곡주 및 민속주(4.4점), 음청류(4.3점) 등이었다. 경제성에서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김치류였고(4.6점), 그 다음으로 장류(4.5점), 음청류(4.3점), 다류(4.3점), 전통곡주 및 민속주(4.2점), 구이류(4.1점) 순이었다. 상품화가능성 측면에서는 김치류가 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류(4.7점), 음청류(4.6점), 다류(4.5점), 한과류(4.4점), 전통곡주 및 민속주(4.4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김치류가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류(4.6점), 음청류(4.5점), 다류(4.4점), 전통곡주 및 민속주(4.3점), 한과류(4.2점), 불고기·갈비 등 구이류(4.1점) 순이었다.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평가 영역별로는 의복 및 의생활분야와 마찬가지로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경제성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주택 및 주생활분야를 보면(<표 4> 참조), 3차 조사결과 과학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창호(4.4점), 온돌(4.4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목가구(4.3점), 황토방(4.3점), 한옥(4.2점), 옷칠(4.1점) 등이었다. 경제성에서는 목가구(3.9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창호(3.8점), 황토방(3.8점), 온돌(3.7점), 장판지 및 벽지(3.6점), 나전칠기류(3.5점) 등이었다. 상품화 가능성은 창호(4.3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목가구(4.2점), 장판지 및 벽지(4.0점), 온돌(3.9점),

표 3. 전통지식·기술 항목별 평가점수(음식 및 식생활분야)

지식·기술 항목	과학성 (응답 수)		경제성 (응답 수)		상품의가용성 (응답 수)		종합평가 (응답 수)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한과류 (약과, 전병 등)	4.1(35)	4.1(38)	4.0(35)	4.1(37)	4.4(35)	4.5(37)	4.2(30)
음청류 (식혜, 수정과 등)	4.3(34)	4.4(37)	4.3(34)	4.5(36)	4.6(34)	4.6(36)	4.5(30)
김치류	4.8(36)	4.7(39)	4.6(36)	4.6(38)	4.9(36)	4.9(38)	4.8(32)
장류 (된장, 고추장 등)	4.7(36)	4.7(38)	4.5(36)	4.6(37)	4.7(36)	4.7(37)	4.6(31)
떡류 (시루떡, 화전 등)	3.8(35)	3.8(38)	3.8(35)	3.9(37)	4.1(35)	4.0(37)	3.9(30)
다류 (차 및 건강음료)	4.5(36)	4.3(36)	4.3(36)	4.4(35)	4.5(36)	4.6(35)	4.4(31)
전통곡주 및 민속주	4.4(35)	4.3(38)	4.2(35)	4.4(37)	4.4(35)	4.5(37)	4.3(30)
면류 및 빵류	3.4(33)	3.5(34)	3.3(33)	3.6(34)	3.6(33)	3.8(35)	3.5(29)
전류 (빈대떡, 생선전 등)	3.6(35)	3.7(36)	3.5(35)	3.6(37)	3.6(33)	3.7(36)	3.4(30)
구이류 (불고기, 갈비 등)	4.0(36)	4.0(38)	4.1(36)	3.9(37)	4.2(36)	4.3(37)	4.1(31)
구절판	3.5(34)	3.8(37)	3.4(34)	3.6(36)	3.6(34)	3.8(36)	3.4(29)
장아찌류	3.7(34)	3.8(37)	3.7(34)	3.8(38)	3.9(34)	4.0(37)	3.8(29)
산채 및 나물류	3.6(34)	3.7(35)	3.4(34)	3.5(34)	3.5(34)	3.7(34)	3.5(29)
묵류 (두부, 도토리묵 등)	3.7(34)	3.7(35)	3.4(34)	3.6(34)	3.5(34)	3.8(34)	3.5(29)
밥류 (전주비빔밥 등)	3.9(34)	3.9(33)	3.8(34)	4.0(34)	3.9(34)	4.2(33)	3.8(29)
건조분말류 (미숫가루, 과립 등)	4.1(34)	3.9(36)	3.9(34)	3.9(35)	4.0(34)	4.0(35)	3.9(29)
반상차림	3.2(34)	3.1(34)	2.8(34)	2.8(35)	3.2(34)	3.1(34)	2.9(29)
이바지 및 폐백음식	2.9(34)	3.0(33)	3.0(34)	3.1(34)	3.8(34)	3.3(33)	3.0(29)
젓갈류	3.8(34)	3.7(34)	3.6(34)	3.6(34)	3.8(34)	3.9(35)	3.7(29)
곡류 및 과실식초	4.1(34)	4.0(35)	3.7(34)	3.8(34)	4.0(34)	4.1(34)	3.9(29)

※ 평가점수의 기준 : 1점(개발가치가 대단히 적음)~5점(개발가치가 대단히 많음)

표 4. 전통지식·기술 항목별 평가점수(주택 및 주생활분야)

지식·기술 항목	과학성 (응답수)		경제성 (응답수)		상품화가능성 (응답수)		종합평가 (응답수)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창호 (한지창호, 들창 등)	4.4(34)	4.3(35)	3.8(34)	3.9(36)	4.3(34)	4.3(35)	4.2(30)
목가구	4.3(34)	4.4(35)	3.9(34)	3.8(34)	4.2(34)	4.2(34)	4.1(30)
온돌	4.4(33)	4.4(36)	3.7(33)	3.8(35)	3.9(33)	4.0(35)	4.0(29)
황토방 (황토, 황토벽돌 등)	4.3(32)	4.2(37)	3.8(32)	3.6(36)	3.8(32)	3.8(36)	3.9(29)
한옥	4.2(33)	4.3(35)	3.1(33)	3.3(34)	3.5(33)	3.5(34)	3.5(29)
정자	3.8(32)	3.8(34)	3.1(32)	3.2(33)	3.3(32)	3.2(33)	3.3(29)
마루 (평상, 누마루, 대청 등)	4.0(33)	3.9(34)	3.4(33)	3.4(35)	3.8(33)	3.6(34)	3.7(30)
나전칠기류	3.9(32)	4.0(36)	3.5(32)	3.6(35)	3.9(32)	4.0(35)	3.9(29)
옷칠	4.1(32)	4.3(36)	3.4(32)	3.6(35)	3.9(32)	4.0(35)	3.9(29)
전통가옥 (초가, 귀틀집 등)	3.4(33)	3.5(33)	2.7(33)	3.2(34)	3.0(33)	3.2(33)	3.0(29)
기와 (기와, 기와분양 등)	3.7(33)	3.7(36)	3.3(33)	3.5(35)	3.6(33)	3.6(35)	3.4(29)
장판지 및 벽지	3.8(33)	3.9(35)	3.6(33)	3.9(34)	4.0(33)	4.1(34)	3.9(29)
전통담장	3.6(33)	3.8(32)	3.2(33)	3.5(33)	3.4(33)	3.5(32)	3.4(30)
향교 및 서원	3.1(33)	3.0(31)	2.6(33)	2.8(33)	2.7(33)	2.7(31)	2.8(30)

※ 평가점수의 기준 : 1점(개발가치가 대단히 적음)~5점(개발가치가 대단히 많음)

나전칠기류(3.9점), 옷칠(3.9점), 황토방(3.8점), 마루(3.8점) 등이었다. 종합평가 점수에서는 창호가 가장 높았고(4.2점), 그 다음으로 목가구(4.1점), 온돌(4.0점), 황토방(3.9점), 나전칠기류(3.9점), 옷칠(3.9점), 장판지 및 벽지(3.9점) 순이었다.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영역별로는 과학성이 가장 높았고 경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 및 기타 분야를 보면(<표 5> 참조), 3차 조사결과 과학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한지제품(4.5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옹기류(4.4점), 도자기류(4.2점), 부채(4.0점) 등이었다. 경제성에서는 한지제품과 도자기류가 4.0점으로 가



표 5. 전통지식·기술 항목별 평가점수(생활용품 및 기타분야)

지식·기술 항목	과학성 (응답수)		경제성 (응답수)		상품화가능성 (응답수)		종합평가 (응답수)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한지제품	4.5(33)	4.5(37)	4.0(33)	4.1(36)	4.3(33)	4.5(36)	4.3(29)
웃놀이	3.6(33)	3.8(35)	3.5(33)	3.9(35)	4.0(33)	4.1(35)	3.6(29)
도자기류 (그릇 포함)	4.2(34)	4.2(36)	4.0(34)	4.1(37)	4.2(34)	4.3(36)	4.1(29)
죽제품 (죽부인, 죽과반 등)	3.6(33)	3.9(35)	3.4(33)	3.6(34)	3.8(33)	3.7(34)	3.6(29)
옹기류	4.4(33)	4.2(36)	3.8(33)	3.9(35)	4.1(33)	4.1(35)	4.1(29)
유기	3.6(32)	3.7(35)	3.3(32)	3.5(36)	3.6(32)	3.9(35)	3.4(28)
부채	4.0(34)	3.9(37)	3.9(34)	4.1(36)	4.2(34)	4.4(34)	4.1(29)
연	3.8(34)	3.9(36)	3.3(34)	3.5(35)	3.4(34)	2.9(34)	3.4(29)
목기류	3.8(32)	3.9(34)	3.4(32)	3.8(35)	3.8(32)	4.0(34)	3.7(28)
짚풀 (도롱이, 짚신 등)	3.1(32)	3.0(34)	2.7(32)	2.8(35)	2.9(32)	3.0(34)	2.8(28)
팽이	3.2(31)	3.4(36)	3.0(31)	3.3(35)	3.1(31)	3.4(35)	3.0(28)
인형 (무당인형 위인전래인형 등)	3.1(32)	3.0(34)	3.2(32)	3.1(35)	3.5(32)	3.4(34)	3.2(28)
고비 (편지, 서류보관함)	3.2(31)	3.1(33)	3.2(31)	3.1(35)	3.4(31)	3.3(34)	3.2(28)
널뛰기	3.0(30)	3.3(32)	2.8(30)	3.1(32)	2.9(30)	3.1(33)	2.7(27)
굴렁쇠	3.2(30)	3.4(34)	2.9(30)	3.2(34)	3.1(30)	3.1(35)	2.9(27)
민속그림	3.2(30)	3.3(34)	3.0(30)	3.3(33)	3.4(30)	3.6(33)	3.2(27)
투호	2.5(30)	2.5(32)	2.5(30)	2.8(32)	2.8(30)	2.8(33)	2.5(27)
화각	3.1(30)	3.0(32)	2.8(30)	2.8(32)	3.2(30)	3.4(33)	3.1(27)
함	3.1(33)	3.2(33)	3.1(33)	3.2(33)	3.3(33)	3.6(34)	3.2(29)
소반(상)	3.7(34)	3.7(35)	3.4(34)	3.7(34)	3.8(34)	4.0(34)	3.6(29)

※ 평가점수의 기준 : 1점(개발가치가 대단히 적음)~5점(개발가치가 대단히 많음)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채(3.9점), 옹기류(3.8점), 웃놀이(3.5점) 순이었다. 상품화가능성에서도 한지제품이 가장 높았고(4.3점) 그 다음으로 도자기류(4.2점), 부채(4.2점), 옹기류(4.1점), 웃놀이(4.0점) 등이었다. 종합평가점수에서도 한지제품이 가장 높았고(4.3점), 그 다음으로 도자기류(4.1점), 옹기류(4.1점), 부채(4.1점), 목기류(3.7점) 등이었다.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영역별로는 과학성이 가장 높았고 경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음식 및 식생활분야가 종합평가점수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복 및 의생활분야와 생활용품 및 기타분야가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3개 평가영역 가운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경제성이 가장 낮았으며, 4개 분야 가운데에서는 음식 및 식생활분야의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의복 및 의생활분야와 음식 및 식생활분야가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주택 및 주생활분야는 과학성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품 및 기타 분야는 3개 평가영역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전통지식·기술의 분야별 영역별 평가점수

지식·기술 분야	과 학 성 (응답자수)		경 제 성 (응답자수)		상 품 화 가 능 성 (응답자수)		총 합 평 가 (응답자수)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의복 및 의생활	3.3(35)	3.5(37)	3.2(35)	3.3(37)	3.6(35)	3.7(37)	3.4(31)
음식 및 식생활	3.9(35)	3.9(36)	3.8(35)	3.9(36)	4.0(34)	4.1(36)	3.9(30)
주택 및 주생활	3.9(33)	4.0(35)	3.4(33)	3.5(34)	3.7(33)	3.7(34)	3.6(29)
생활용품 및 기타	3.5(32)	3.5(35)	3.3(32)	3.4(34)	3.5(32)	3.6(34)	3.4(28)
계	3.6(34)	3.7(36)	3.4(34)	3.5(35)	3.7(34)	3.8(35)	3.4(30)

※ 평가점수의 기준 : 1점(개발가치가 대단히 적음)~5점(개발가치가 대단히 많음)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전통토착지식 자원을 실용화,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토착지식·기술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delphi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전통지

식 및 기술의 항목을 선정하고 5점 척도에 의한 계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집단이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항목으로 제안한 전통지식·기술 항목은 모두 114항목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의복 및 의생활분야 22항목, 음식 및 식생활분야 24항목, 주택 및 주생활분야 18항목, 생활용품·놀이용품 등 기타 분야 50항목으로 생활 및 놀이용품 분야가 가장 많고 주택 및 주생활 분야가 가장 적었다.

2) 이들 114항목 중에서 3인 이상이 제안한 75항목에 대한 개발가치를 과학성, 경제성, 상품화 가능성 등 3개 영역과 함께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5점 척도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복 및 의생활분야에서는 전통문양이 종합평가점수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음식 및 식생활 분야에서는 김치류(4.8점), 주택 및 주생활분야에서는 창호(4.2점), 생활용품 및 기타분야에서는 한지제품(4.3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체적으로 볼 때 분야별로는 4개 분야 중 음식 및 식생활분야가 가장 높았고 평가영역별로는 3개 영역 중 상품화 가능성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전통문화 자원을 상품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는 음식 및 식생활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식·기술 항목별로는 의복 및 의생활분야의 전통문양과 장신구, 음식 및 식생활분야의 김치류, 장류, 음청류, 다류, 전통 곡주 및 민속주, 한과류, 갈비 및 구이류, 주택 및 주생활분야의 창호, 목가구, 온돌, 생활용품 및 기타분야의 한지제품, 도자기류, 용기류, 부채 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3개 평가영역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 전통지식 및 기술의 항목과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통토착지식의 개발가치 평가』에 대한 토론

김종대(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1.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지식, 그것을 현재에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이번에 한 작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기술이 상품화되어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질문이 본인의 주전공도 아닌데 과연 걱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첫 번째로 조사된 항목들이 과연 농촌사회에서의 토착지식과 전통농업 기술이라는 분야 속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크게 네 가지의 대분류 속에 각기의 소분류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농촌사회에서 단순작업으로 할 수 없는 분야도 적지 않다. 즉 전문적인 직업인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기술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생활에서의 장신구나 노리개, 주생활의 목가구·나전칠기·향교와 서원, 생활용품의 한지·악기·도자기류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오히려 생업과 관련한 분야를 한 항목으로 설정하여 농민들의 손재주를 반영한 대상물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농민들이 일반적인 도구로서 만들었던 멍석이나 삼태기, 둥구미를 만드는 기술을 활

용해서 개집을 만든다든가, 혹은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재창조하는 식으로의 항목 설정이 그것이다.

이런 관점은 4개의 대분류를 생활문화 속에서 추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주생활과 달리 전통 공예분야가 따로 항목이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의 문화상품 개발은 전통공예와 음식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선례를 통해서 개발과정에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조사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이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3. 소분류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먼저 의생활분야를 보면 직물과 염색, 복식, 장신구, 여기에 옷을 만드는 도구까지 수용하고 있다. 과연 이런 분류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의생활 중에서 그것들이 개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복 소품, 버선 및 타래버선, 흥배 및 대구 등은 한복과 맞춤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류 항목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종합평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읽을 수 있다. 왜 이 분야들이 최저점을 받았는가? 그것은 이들 항목이 단독의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없으며,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복을 입을 때 버선이 양말의 짝으로 대치될 수 있으며, 관복과 짝을 이루어 흥배가 멋들어지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적절한 상품화를 기획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오히려 흥배는 전통문양 디자인 쪽에서 다른 의복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소분류 항목들의 선정이 단순화되어 상품화 대상의 본질을 훼손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자료가 단순히 통계자료로서만 존재한다면 몰라도 이 결과를 통해 상품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항목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등에 대해서

도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4. 각 항목은 의식주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그런 항목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까지 항목으로 설정되어 전체적인 구분의 배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생활에서 전통문양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음이 좋은 예이다.

전통문양은 단지 의생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떡살과 같은 식생활도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문살 문양, 기와 문양, 도자기류에 나타난 문양 등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문양은 오히려 대분류의 항목 속에 수용되거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문화상품과 관련한 지원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행자부,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디자인진흥원,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에서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통문화 속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품목들의 문화상품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어 시판되거나, 개발과정에 있는 대상은 제외하고 새롭게 발굴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점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상품들의 문화전략을 조사연구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상품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판매전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는 향후 보완해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평가된 항목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것은 현재 실생활에서 활용되거나 먹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쉽게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에게 호응이 높은 품목이라고 해서 세계화되기에는 어려운 대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품목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대상도 있다. 예를 들어 식생활의 <반상차림>이 평균 2.9라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최근 인사동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식차림이 외국인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찰음식까지 판매 품목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향으로도 음식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한국인 전문가들 대상으로만 품목의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다.

6.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항목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책을 찾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 방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문화상품의 대상이 생활문화 전반의 항목들 속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선별된 항목들이 과연 세계적인 문화경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원초적인 의문까지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